日, 방치된 '민폐대불' 논란

버블 경제 당시 불사 유행
최근 방치 문제 다시 대두

박영빈 객원기자

경제호황을 누리던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대불'들이 관리자의 부재와 경영난 등으로 방치되면서 '민폐대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8월 5일 일본 '일간 SPA'는 폐허가 돼가는 일본 각지의 대불에 대해 보도했다.

버블경제 시기, 일본각지에선 '대불붐'이라고 할 정도로 대불을 조성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사찰이나 신심 깊은 사업가가 정식으로 불모에게 의뢰하여 조성한 대불도 있었지만, 대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예경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조악한 대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개중에는 불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과 형태만 불교색을 띄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대불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호황이 지나가고, 대불을 조성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재원을 충당하던 사업가나 신도들이 사라지면서 관리자가 불명이 된 대불들은 '민폐대불'이라는 오명을 안기 시작했다. 1977년 아와지시마(淡路島)에 조성됐던 세계평화대관음(世界平和大觀音)이 대표적인 예다. 조성당시 높이 100m의 관음상으로 대불내부에 전망시설을 갖추는 등 화제가 됐으나, 점차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방문객의 감소, 경영자의 사망 등으로 2006년 폐쇄됐다.


'민폐대불'로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우사미의 관음상. 사진출처=일간 SPA

개설당시부터 사찰을 표방했지만 실제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교계 측에서도 책임을 지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조악한 조형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흉물로 불렸다. 결국 아와지시마시는 올해 시예산 8억 8천만 엔(한화 약 91억 6천만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의 전면적인 철거를 결정했다.

사찰에서 조성한 대불도 방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우사미(宇佐美)에 소재한 대불은 지역사찰에서 조성한 대불로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이 50m의 관음좌상이다.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우사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소개 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전대 주지가 조성한 대불이다. 산기슭에 불쑥 튀어나와 주변 경관을 망가뜨리는 데다가, 조성당시 지역의 그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논란이 많은 불상이라 아무리 십수 년을 바라보아도 애착도, 신심도 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대불들의 건축 수명 만료와 함께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건축학자인 모리야마 다카시는 "일반 건물도 10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버블경제 시기의 대불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건물과 달리 단지 콘크리트와 철근만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아,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해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中 코로나 확산 방지 빙자, 사찰 폐쇄

감숙성 위치한 티베트 사원
3천 명 이상 거주하는 대찰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정부에서 3천 명 이상의 대중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 강제 폐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님들에 대한 강제환속과 추방이 진행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2일, '더 티베트 포스트', '파율' 등 티베트 뉴스 전문 매체들이 티베트 사찰 강제폐쇄를 특별 보도했다.

중국 간쑤(甘肅)성 융징(永靖)현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카르마르 사원(중국명 훙청쓰 紅城寺)은 13세기에 지어진 고찰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싸꺄파의 사찰이다. 원나라의 국사였던 팍빠(八思巴) 대사를 기리기 위해 원 황실이 발원하여 세운 대탑을 지키기 위해 시작하여 전성기에는 3천 명 가량의 대중스님들이 상주했던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카르마르 사원은 19세기에 일어난 민란으로 소실되어 명맥만을 유지, 1950년대에 일시 재건되었으나 곧 이은 문화대혁명으로 다시금 폐사됐다. 그러나 대중스님들과 지역신도들의 꾸준한 발원으로 2006년부터 재건을 시작해 3년만에 옛날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후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신행의 중심지로 전성기와 같은 3천 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함께 머물며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 부활했다.


강제로 끌려 나가고 있는 카르마르 사원의 스님들.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그러나 지난 1일, 융징현 지역 정부는 사원의 폐쇄와 더불어 다수의 대중스님들에 대한 강제환속 및 이주 조치를 집행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당의 명령을 물리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의 출가자나 강사 등의 소임자들에 대해서는 타 사찰로 강제 이주를, 젊은 출가자들에 대해서는 환속이 진행됐다.

카르마르 사원의 스님들은 수행을 지도하던 노스님들과 도반스님들을 눈물로 보내며 '출가자의 강제환속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문과 법당에서 기도하며 평화시위에 나섰다. 이미 강제로 환속된 일부 스님들도 당국에 가사를 반납하지 않은 채 산문 앞에서 통곡하며 시위에 함께했다.

이 사태에 대해 베이징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작가 체링외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정보통이 보내온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카르마르 사원을 이끄는 고승인 겐쫑 린뽀체는 사원을 중심으로 방역과 구호물자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 보조 등을 위한 기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융징현은 물론 해외의 불자들에게도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30만 위안(한화 약 5억 3천만 원)의 금액이 모금됐다.

정보통은 "갑자기 거액의 보시금이 모인 것에 대해 지방 당국이 우려와 의심을 표명했으며, 모금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탈세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삼았다"고 전했다. 결국 사원의 기금 프로젝트로 모인 보시금을 지방 정부와 동등하게 나눈다는 것으로 문제는 종결됐다.

하지만 사원에 대한 당국의 불합리한 불시조사가 점점 더 잦아졌고, 점차적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현지 소식통은 "당국은 사찰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핑계로 사찰을 폐쇄했으며, 스님들을 쫓아내기 위해 사찰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지난해 2곳의 티베트 사찰에 대한 폐쇄를 진행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승단 코로나19 자원봉사 나서

산소 실린더 배달, 사망자 이송 등 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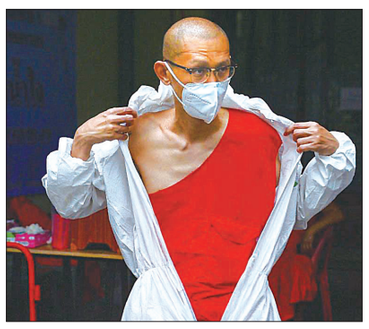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 태국에서 스님들이 직접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이 8월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불교 스님들은 최근 국가 코로나19 봉사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산소 실린더를 배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안내 봉사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스님들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이송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방콕 수티 와라람 사원(Suthi Wararam Temple)의 마하 프롬퐁(Mahapromphong) 부주지 스님은 MSN과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은 태국 공동체의 영적지도자로서 사람들은 승가에 의지해 왔다"며 "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서 돕는 건 당연한 의무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부모를 사찰에 유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 주에



서는 80세 노인이 사찰에 남겨진 일이 드러났다.

당시 아버지를 유기한 딸 부부는 "아버지가 콘깬주에 살 때 알게 된 승려와 사찰에서 함께 살길 원한다"며 황급히 절을 떠났다.

이 노인은 사찰에 온 지 이틀째인 7월 27일 사찰 주변 오솔길에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딸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아버지를 버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중국화 정책 반발 티베트 억압

분신한 스님 상좌 징역, 구금


트로치크 사원 교구장 꼰메이 스님(왼쪽)과 최근 중국 교도소서 석방된 롭상 텐진 스님.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티베트 불교 수도원 킬티 사원의 롭상 예세(Lobsang Yeshe)와 카냐크 티세링(Kanyak Tsering)에 따르면 티베트 스님 꼰메이(Konmay · 45)가 7월 20일 중국 당국에 원인 불명으로 체포됐다고 티벳포스트(the Tibet Post)가 8월 5일 보도했다.

꼰메이 스님은 티베트 자치구의 아바(Ngawa)현에 있는 트로치크(Trotsik) 사원 교구장으로, 트로치크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출가했다.

그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로,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인터넷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체포 이유 등 구체적인 체포 경위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킬티 사원의 롭상 텐진 스님은 중국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복역하다 며칠 전 풀려났지만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롭상 텐진은 2011년 3월 16일 중국의 억압 통치와 중국화 정책에 반발해 분신한 롭상 푼촉 스님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같은 달 23일 체포됐다. 이후 중국 차아바현 인민법원은 같은 해 8월 28일 롭상 텐진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